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욕망’과 남성의 ‘비밀’: 브래든의 『오들리 부인의 비밀』을 통하여

강서연

1. 들어가는 말

메리 엘리자베스 브래든(Mary Elizabeth Braddon)의 소설 『오들리 부인의 비밀』(*Lady Audley's Secret*)은 빅토리아 사회 곳곳에서 들끓던 갖가지 ‘욕망’과 그 욕망을 다스리려는 힘 사이의 한판 대결을 대변하는 장이다. 이것은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품의 출간을 둘러싼 출판 배경도 그러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1860년대 대표적인 ‘선정소설가’로서 브래든은 대중을 홀려서 도덕적으로 의심되는 작품을 탐닉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에 나오는 사악한 여주인공에 종종 비유되었다(Cvetkovich 17). 금발 고수머리에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도피·중혼·살인기도·방화를 서슴지 않으며 가난에 찌든 삶을 탈피하고 부와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따라 행동에 나섰을 때, 주 독자층인 여성들은 열렬히 호응하였다. 당대 비평가들에게 이들 여성들은, 술주정뱅이 퇴역 군인의 딸인 헬렌 맬던(Helen Maldon)이 헬렌 텔보이스(Helen Talboys), 루시 그레이엄(Lucy Graham), 루시 오들리(Lucy Audley)를 거쳐 테일러 부인(Mrs. Taylor)으로 귀착되는 동안, 그녀의 욕망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여 같이 환상을 꿈꾸고 환호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들의 호응은 당대 비평가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은 ‘선정소설’이 여성 주인공을 성적인 존재로 재현하면서 사회관습을 위반하는 인물로 묘사한다는 것이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 바탕한 많은 비평가들은, 이 소설의 여주인공 루시가 겉으로는 당대 이분법적 성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상적인 ‘가정의 천사’ 이미지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치밀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냉정히 범죄를 저지르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가부장제를 전복시키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쇼월터에 따르면 범죄와 폭력을 가정으로, 현대로, 교외 주거지로 들어온 ‘선정소설’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에게 삶의 한 방식이었던 비밀, 즉 여성들이 딸·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싫어한다는 비밀을 공유케 했다(Showalter 1977, 158-59). 쇼월터는 브래든이 살인까지 저

지를 뺀 여자를 버사 메이슨식의 광녀가 아닌 로자몬드 올리버 같은 아름답고 연약한 인물로 설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Showalter 1977, 165). 빅토리아 시대 ‘가정의 천사’에 가장 어울리는 외모를 한 여인이 남성들의 욕망이 그들의 육체와 정신에 기대한 환상과는 달리 ‘천사답지 않은’ 행동으로 나선 것은 분명 주목할 요소가 있다. 그녀가 기존의 문학관습과는 달리 ‘아름다운 모습을 한 악마’로,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여성상을 전복하는 것은 소설 출간 당시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쇼월터 등의 여성주의 비평가에 따르면 브래든과 같은 여성 작가의 ‘선정소설’이 거둔 폭발적인 대중적인 인기는 전통적인 여성소설의 전통을 전복함으로써 여성독자들이 내밀히 억압하고 있던 감정을 표출하고 저항과 도피의 환상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howalter 1977, 158).

그러나 루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부장제에 대해 저항적이고 전복을 꿈꾸는 인물로 해석하는 시각은 작품 내에서 루시가 목적하는 욕망의 양상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감이 있다. 분명 루시는 콜린스(Wilkie Collins)의 『흰 옷 입은 여자』(*The Woman in White*)의 로라 페어라이(Laura Fairlie)처럼 자신을 억압해 오는 가부장제의 억압을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는 인물은 아니다. 루시는 로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력이 있는 인물로서 중혼·살인·방화 등 적극적인 행동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애초에 가부장적 사회 관습에 저항하려는 의식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루시가 두 번의 결혼을 통해 보여주는 결혼관은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루시는 본질적으로 가부장제에 전복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체제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때, 즉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행동에 나섰다.

한편 가부장적 체제 하의 남성들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길버트의 논의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길버트는 당대 비평가들이 루시를 비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들어맞지 않는 남성들의 면모는 묵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94). 길버트에 따르면, 변호사로서의 자격만 있을 뿐 소송일을 하지 않는 로버트(Robert Audley)나 부유한 청혼자를 물색해 경매하듯 딸을 결혼시키고 술독에 빠진 맬던(Mr. Maldon) 씨, 갓난 아들과 아내를 버리는 조지(George Talboys),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사랑의 ‘열병’에 빠져 맞아들이는 마이클 경(Sir Michael Audley) 등은 모두 가부장 이데올로기 내의 이상적 남성상과 거리가 멀다(Gilbert 1997, 94).

따라서 이 글은 다음의 세 가지 맥락에서 『오들리 부인의 비밀』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여주인공 루시를 당대 가부장적 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복적 인물로 단순하게 읽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되, 루시의 욕망이 드러내는 빅토리아 사회의 계

급적·성적 억압의 요소를 살펴본다. 둘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체제 내에서 억압으로 위장된 여성만큼이나 분열된 남성들의 의식을 추적한다. 셋째, 당대 남성 지배계층이 루시의 욕망에 대해 가진 두려움을 밝히고 그 욕망을 차단하는 방식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 세 가지 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들리 부인의 비밀』을 빅토리아 사회에서 '여성이 가진 욕망의 실체'와 '욕망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의 통제방식을 규명하려 한다.

2. 빅토리아 시대의 '결혼시장'과 여성의 욕망

『오들리 부인의 비밀』은 1장 「루시(Lucy)에서 과거가 미지에 싸인 여성인 가정교사 루시의 '굉장한' 결혼 소식과, 2장 「아르구스 배 위(On Board the Argus)에서 호주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자신이 버렸었던' 아내 헬렌을 3년 반 만에 만날 생각에 들떠 있는 조지 텔보이스가 차레로 등장하며, 루시와 헬렌의 정체에 대한 긴장이 고조된다. 갑판에서 조지와 대화를 나누는 가정교사 몰리 양(Miss Morley)은 자신이 호주에 있는 동안 변했을 지도 모를 약혼자와 고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민하는 반면, 조지는 단 한 줄의 편지도 없이 3년 반 동안이나 외국을 떠돌다 가는 중임에도, 버렸던 아내를 자기가 두고 온 그대로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조지는 루시¹⁾를 “세속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 이 세상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Again the old fancy came back] that she was something too beautiful for earth, or earthly uses; 57²⁾) 여자라고 회상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조지의 “환상”(fancy)에 불과하다. 조지는 몰리 양에게 루시를 그녀 아버지 맬던이 주최한 ‘경매’의 과정에서 취득한 상품처럼 묘사한다. 맬던 씨는 결혼시장에서 “딸을 최고 입찰자에게 팔려”(he was ready to sell my poor little girl to the highest bidder; 18) 의도로 알뜰한 계교를 부린 계산 속 밝은 아버지이다. 조지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맬던 씨뿐만 아니라 루시 자신이 결혼을 한 판 거래로 보았으며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집요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게 되는”(I had learnt that which] in some indefinite manner or other every schoolgirl learns sooner or later) 이 사실은, 루시의 결혼관이 당대 루시와 비슷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널리 공유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시 빅토리아 사회는 제국주의의 팽창과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욕망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뿌리깊게 침투하던 때였다. 이

1) 편의상 '루시'라고 부르기로 한다.

2) 앞으로 본문에 인용되는 주 텍스트의 페이지 번호는 'Braddon, Mary Elizabeth. *Lady Audley's Secret*. 1861. NY: Oxford UP, 1987'을 따른다.

에 발맞추어 욕망은 기존의 부와 신분 체계를 뒤흔들고 동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으며 당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약혼자가 변심했지나 않을지, 사랑 대신 저축액에만 관심있을지, 나이들고 추해진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지, 혹은 도착 전에 그가 죽지나 않을지 — 물리 양의 끝없는 걱정은, 일년이 다르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술렁이던 모습이다. 이 같은 부에 대한 욕망은 계층과 성을 막론하고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에게서 읽을 수 있다. 앞서 루시의 아버지 맬던 씨의 딸을 잘 결혼시켜 한 몫 잡아보려는 의도에서 “얕팍한 속임수”(shallow tricks; 18)를 쓰기도 하며, 루시가 정체성 위장과 중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준다. 루시는 “가난이 명예와 원칙에 관한 감각을 무디게 했기 때문”(for poverty had perhaps blunted his sense of honour and principle; 355)에 아버지가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플로슨 부인(Mrs. Plowson)도 역시 가난에서 비롯한 탐욕으로 루시의 돈을 받고 폐병에 걸린 딸을 텔보이스 부인(Mrs. Talboys)으로 정체성을 위장하여 매장하는 데 동의한다(357). 애초에 시골 지주의 아들인 조지가 호주로 간 것도 아버지가 못마땅해하는 결혼으로 상속권을 거부당하자 하루 계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새로운 세계에서 부를 이루”(to try my fortune in a new world; 21)려는 욕망에 따라 가족을 버리고 호주행을 택했고, 이처럼 쉽게 결정하는 조지의 모습에서, 당시 영국사회가 유통적이며 부를 획득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Schroeder 35). 부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회 계층이 판별되고 계층간 수직적 이동이 용인되었으며, 부를 거머쥐면 언제든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내에 팽배했다. 그러나, 맬던 씨, 플로슨 부인, 조지의 예에서 보듯이, 당시 부에 대한 욕망 추구는 종종 도덕과 사회규범의 문제와 부딪혔으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처럼 사회 밑바닥을 요동치던 부에 대한 욕망은 루시와 동시대 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에게 열려 있는 길은 ‘결혼’이라는 외길뿐이라는 점이었다. 루시는 십대 시절 이미 부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혼”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I learned that my ultimate fate in life depended upon my marriage; 350). 계층적·성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조지에게 결혼이 ‘경매’와 같은 것이었다면, 루시에게 결혼은 “이 세상 최고의 복권”(the world’s great lottery; 350)이다. 루시에게 미모는 ‘결혼 복권’에 당첨되기 위한 최고의 자산이며 남들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다. 미모에 대한 칭찬을 처음에는 “무심하게”(indifferently; 350), 점점 “탐욕스럽게”(greedily; 350) 듣게 되는 루시의 변화는 곧 결혼을 통해 부를 성취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루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과 광증의 흔적을 지닌 이름 ‘헬렌 맬던’을 버리고 기꺼이 ‘헬렌 텔보이스’가 된다. 우여

곡절을 거친 끝에 루시는 마침내 굉장한 재산을 가진 준남작 마이클 경과의 결합을 통해 같은 여성들로부터 “질투로 인한 반감을 살만큼 명백히 이로운 결혼”(apparently advantageous matches which are apt to draw upon a woman the envy and hatred of her sex; 5)에 안착하기에 이른다. 이 결혼은 루시에게 “이제 더 이상의 의존과 고통과 굴욕이 없”(no more dependence, no more drudgery, no more humiliation; 12)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두 번에 걸친 결혼관 어디에서도 루시가 빅토리아조 가부장제가 부여하는 결혼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하류계층의 여성들은 성공적인 결혼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빅토리아조의 결혼관을 루시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독립적인 독신의 길을 개척하거나 빅토리아조 가정의 이상을 전복하거나 반항할 의지도 그럴 기회도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당대 결혼제도에 철저하게 순응하여 성공하는 것이다. 즉, 루시는 쇼월터가 논의하듯 “딸·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싫어”(158)하는 비밀을 공유한다기보다는 결혼을 통해 욕망을 추구하려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도슨 부인(Mrs Dawson) 말마따나 “굉장한 수입”(splendid income)과 신분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Your[Lucy's] position would be high; 8) 결혼은 더할 나위 없는 결합으로 간주되었다. 슈뢰더(Schroeder)가 지적하듯이, 당시 여성에게 결혼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인구통계학상으로 여성의 숫자가 남성을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경쟁이었고 만족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얼른 결혼해야 했다(Schroeder 29). 게다가 결혼을 그것도 ‘잘하려는’ 욕심을 가진 루시는 “가장 예쁜 여자라도 부자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긴 시간 기다려야”(even the prettiest girl might wait a long time for a rich husband; 351) 한다고 깨달을 만큼 초조히 지냈다. 당시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25세라는 점을 감안(Thompson 52)한다면, 17세의 루시가 그럴싸해 보이는 첫 “부유한 구혼자”(the rich suitor; 351)이자 “왕자”(prince; 351)로 다가온 조지와 서둘러 결혼한 것은, 가난한 현실을 탈피하여 성공적인 결혼으로 진입하려는 루시의 욕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또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할까 봐 얼마나 안달했는지 반증한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곧 성공적인 결혼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남녀간 교육과 경험의 차, 경제 문제로 부부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흔했다. 당대의 현실을 참고할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루시와 조지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것도 하등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에 대한 애초의 목표가 기대에 어긋날 때, 루시는 당대 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조지는 “돌아와 부와 행복을 선사하겠다”(if I succeeded I should come back to bring her plenty and happiness; 21)는 다짐만으로 아내와 갓난 아들을 버리는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그러한 행동에 대해 조지 스스로나 로버트,

화자 그 누구도 질곡에 빠진 현실을 탈출하여 부와 성공을 향한 조지의 강렬한 욕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즉, 성공을 향한 남성의 시도는 가정의 영역을 자유롭게 벗어난다.

그러나 여성인 루시에게는 이름을 바꾸어 ‘루시 그레이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혼’이 여성에게 거의 유일하게 허용된 욕망 추구의 기회이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와의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혼’의 위협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루시의 ‘중혼’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 루시의 처지는 고려되지 않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성적인 기준에서 판단되어 비난받는다. 특히 갓난 아들을 버리고 떠나는 루시의 행동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루시에게서 빅토리아조 가부장제에 대한 전복적 요소를 읽고자 한다면, 루시가 인지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가 조지와 결혼이 실패한 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선 대응방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를 불태워 죽이려는 최후의 결심을 하기 전, “내가 진정으로 사악한 때가 있었나 모르겠다”(Have I ever been really wicked, I wonder?; 297)며 “내가 한 가장 사악한 짓은 그냥 그대로의 충동에 의한 것이었지 철저히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My worst wickednesses have been the result of wild impulses, and not of deeply-laid plots; 297)라는 루시의 생각은 ‘전복적 여성상’으로서의 루시의 한계와 의의를 동시에 말해준다. 즉, 루시에게 여성에 대한 억압은 본질적인 면에서 극복해내야 할 자각된 목표였다고보다는 그 때 그 때의 상황에서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했던 결과인 것이다. 루시처럼 빅토리아조 결혼 관습을 철저히 따르려고 했던 여성도,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빅토리아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맞부딪혀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었다. 즉, 여성이 욕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욕망하는 것을 금지한 사회와 여성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루시 같은 유형의 여주인공은 스스로 여성주의적 자각을 깨쳐 행동한 유형보다, 오히려 더욱 더 당대 여성의 현실을 대변하며 보편성을 띤다. 또, 결혼에 실패한 루시 같은 여성이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흔했다는 점에서 루시는 당대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억압에 안주하지 않고 ‘행동화’에 나서는 루시는 이분법적 성 이데올로기가 규정하는 여성의 경계를 넘게 되고 처단을 받게 된다.

이를 루시처럼 욕망으로 가득하지만 가부장적 사회의 성적 한계를 넘지 않는 피비와 비교해보자. 도슨 씨(Mr. Dawson) 집에서 몸종으로 데리고 온 피비는 안주인 루시가 월급을 후하게 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피비는 “자신과 같은 하녀와 다를 바 없던”(What was she but a servant like me?; 27) 처지의 가정교사 루시가 마이클 경과 결혼을 통해 물질적 부와 신분 상승을 단번에 이룬 것을 질투한다. 그

러나, 외모와 내면이 루시와 비슷한 피비는 “부와 고상한 것에 탐욕적”(greedy of opulence and elegance; 299)이기는 하나, 루시 같지는 않다. 금발 푸른 눈에 장밋빛 볼의 루시가 초상화에 그려진 드레스 색깔만큼이나 붉게 타오르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면, 창백하고 “색채가 결여된”(an absence of colour) 얼굴을 가진 피비는 루시처럼 가부장 체제 내 남성의 영역을 침범할 엄두는 내지 못한다. 그녀의 욕망은 언제나 연인인 루크를 통한다. 피비의 욕망은 피비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되지 않으며, 루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과정을 통해 루크의 욕망으로 전이된다. 다시 말해, 피비의 욕망은 남성인 루크를 통해 가부장제 내에 편입된다. 그리하여 피비의 ‘욕망’은 루시처럼 가부장적 사회의 처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피비는 가부장의 폭력적 권위에 눌린 결혼 생활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 루크는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를 정도로 폭력적인 남성이어서, 피비는 살해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감히 파혼하지 못한다(I daren't refuse to marry him; 107). 피비에게 루크와의 결혼은 어불성설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루시는 분명 가부장적 성역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여성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지체없이 행동에 나선다.

3. 빅토리아 시대 남성의 분열된 자화상

브래든은 이 소설에서 빅토리아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서 결국 저항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여성만 그리는 것은 아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체제 내 남성들의 가치관은, 억압으로 위장된 여성만큼이나 분열된 남성들의 가치관의 모순과 분열을 시종일관 함께 드러낸다. 길버트가 지적하듯이, 소설 내내 여성들은 남성을 기쁘게 하려는 때가 아니면 빅토리아조가 표방하는 가정적 이상의 허위를 뒤엎는 “진실”(truths)을 이야기하지만, 남성들은 대개 “듣기 좋은 이야기”(pretty stories)를 늘어놓는다(Gilbert 1997, 98). 2장 「아르구스 배 위」 장의 조지와 몰리 양의 대화에서, 몰리 양은 현실에 바탕한 걱정을 하는 반면 조지는 루시가 예전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기다릴 것이라는 일방적인 희망과 확신에 빠져 있다. 길버트에 따르면, 조지의 낙관은 서사시의 남성적 영웅의 환상과 유사한데 이것은 루시와 같은 주변 인물의 종속을 기대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요이고 문제적이다(Gilbert 1997, 99). 결혼에 있어서도 조지는 루시와의 만남을 “양 쪽 모두 첫눈에 반한 사랑”(love at first sight on both sides; 18)이라며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정도로 사랑에 기반한 진실한 결혼을 한 것처럼 떠벌리지만, 정작 어려운 때가 되자 무책임하게 떠난 사람은 그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시는 첫 결혼에 대해 “내가 사랑할 능력이 되는 만큼 그를 사랑했”(I loved him as much as it was in my power to love anybody; 351)고

“그의 돈이 있는 한 행복했다”(quite well enough to be happy with him as long as his money lasted; 352)라고 솔직히 고백한다.

루시가 중혼의 비밀을 숨기고 결혼한 두 번째 남편 마이클 경도 다르지 않다. 그는 돈을 훌쩍 넘긴 나이에 스무 살 여성 루시에게 홀딱 반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I scarcely think there is a greater sin than that of the woman who marries a man she does not love; 9)며 낭만적인 청혼을 한다. 그러나 루시가 가난하게 자란 자신이 마이클 경과 결혼을 통한 이익에 “사심없을 수 없으”(I cannot be disinterested; 11)며 자신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자, 마이클 경은 순순히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소… 만약 당신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I will not ask too much of you . . . if you do not dislike me, and if you do not love any one else, I see no reason why we should not make a very happy couple; 11)라며 “거래”(bargain 11)를 제안한다. 여기서 츠베코비치는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 계약관계와 정서적 유대”(between marriage as an economic contract and marriage as an affective bond; 51) 사이의 적나라한 긴장이 표출되는데, 그로 인해 위협되는 결혼과 가족의 가치훼손은 오로지 루시의 책임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지적한다(Cvetkovich 51). 그러나, 전처와의 결혼이 재산유지를 위한 “건조한 거래”(a dull, jog-trot bargain; 6)였다며 열렬한 사랑을 맹세하는 것 같던 마이클 경 자신이 결혼은 근본적으로 ‘거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겉으로 사랑을 내세우는 빅토리아조의 결혼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모순된 이상임이 드러난다. 지루아르는 빅토리아 시대 교외 저택들은 행복한 가족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몹시도 외부에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지적한다(Girouard 270).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는 랭랜드의 말처럼, 안주인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Langland 6). 안주인의 치장과 미덕, 만찬과 차를 준비하는 예법 등은 세상에 내놓는 전시품 같은 것이었다(Langland 7-8). 마이클 경이 상처 후 17년간이나 홀아비로 지내다가 지위나 계층이 전혀 맞지 않는 루시와 결혼을 결심한 것도 이러한 중상류층의 문화와 멀지 않다. 아내가 온통 주변 남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도 질투하지 않고 “감탄의 대상이 되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only proud to see her so much admired; 27) 값비싼 가구와 보석처럼 루시를 오들리 코트에 채워 넣은 마이클 경의 사랑의 진면목은 사치스럽게 맺은 계약의 가면 뒤에 가려져 있다. 다만 그의 결혼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덕분에 ‘사랑’이라는 위장을 통해 세속적 거래에 대한 비난을 면할 뿐이다.

남성들이 그 가면을 벗고 결혼의 진면목을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루시에

게 청혼하고 귀가하는 길의 마이클 경의 심정은 당대 결혼의 진실에 맞닥뜨린 남성의 혼란한 심경을 보여준다.

그는, 집을 나와서 곧장 걸었다, 이 어리석은 늙은 남자, 왜냐하면 그의 가슴속에는 어떤 강한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으니까 – 기쁜 것도 아니고 의기양양한 것도 아닌, 뭔가 실망에 가까운; 어떤 억눌려 버린 만족되지 못한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무겁게 음울하게 내려 앉았다. 마치 가슴속에 송장이라도 들어앉은 듯이 말이다. 그는 루시의 말에 그만 죽어버리고 만 희망의 송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소심한 열망은 이제 끝났다. 그는 재산과 지위 덕분에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 그같이 늙은 나이의 다른 남자들처럼 만족해야만 한다.

He walked straight out of the house, this foolish old man, because there was some strong emotion at work in his heart — neither joy, nor triumph, *but something almost akin to disappointment; some stifled and unsatisfied longing* which lay heavy and dull at his heart, as if he had carried a corpse in his bosom. He carried *the corpse of that hope which had died at the sound of Lucy's words*. All the doubts and fears and timid aspirations were ended now. He must be contented, like other men of his age, *to be married for his fortune and his position*. (11-12, my emphasis)

재산과 지위가 결혼하는 데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루시에 비해 마이클 경의 마음은 억제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송장처럼” 무겁게 자리한다. 그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듯하지만 루시의 고백 장 「부인이 진실을 말한다」(My Lady Tells the Truth)에서 드러나듯, 루시를 진정으로 믿은 적은 없다(352). 마이클 경이 느껴 온 “의식적인 믿음 아래 부지불식간에 드는 불신”(beneath the voluntary confidence an involuntary distrust; 352)은 빅토리아조 이상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남성의 분열된 무의식을 보여준다. 루시가 “절실한 필요에 의해”(the awful necessity of her life; 298) 모든 것을 숨기고 꾸미며 “완벽한 배우”(how complete an actress my lady had been; 298)로서 ‘집안의 천사’ 역할을 연기했다면, 마이클 경도 그에 걸맞는 ‘관대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로버트의 추궁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유희자들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되고 순수한 아내로 남았을 것”(I would have been your true and pure wife to the end of time; 354)이라는 루시의 말이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은, 루시와 마이클 경 둘 모두 애초에 맺은 계약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클 경의 모순된 마음은 오들리 코트를 닮아 있다. 죽음과도 같은 평온함이 감싸고 있는 오들리 코트에 비밀의 방과 어두컴컴한 산책길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듯이, 마이클 경의 너

그렇고 평온한 외양 속에는 아무도 과거를 알지 못하는 가정교사 출신의 아내 루시에 관한 의혹과 불신이 깊숙이 숨겨져 있으며 그는 그것을 맞대면하려 하지 않는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 분열된 남성의 의식을 가장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이는 바로 로버트이다. 원체 게으르고 제대로 소송사건을 맡아 본 적도 없는 이름뿐인 변호사로 소개된 로버트는 루시의 이중혼과 살인·방화를 추적하는 탐정 역할을 통해 소설이 끝날 때에는 조지의 여동생 클라라(Clara Talboys)의 남편이자 유능한 변호사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다수의 비평가들은 이 소설을 로버트의 성장소설로 보기도 한다. 하트는 이 작품을 남자로서나 변호사로서 정체성이 없던 로버트가 루시를 처단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보고(Hart 5), 네이더는 “새롭게 힘을 얻는 남성들이 영국의 독립적인 여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본다(Nayder 39). 네이더에 따르면, 루시 뿐만 아니라 로버트와 결혼하는 클라라도 그 여성들에 속한다. 그녀는 로버트가 추적을 포기할 경우 “성년이며 유산이 있는”(I am of age; my own mistress; rich, for I have money left me by one of my aunts; 199) 자신이 무슨 수를 쓰든 조지를 찾아내겠다고 할 정도로 사회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행동의지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다. 그러나, 소설 끝에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에 만족하며 재산은 법에 의해 남편 것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온다(Nayder 39-40).

이처럼 결혼을 통해 빅토리아조 여성의 영역에 안전하게 머무르는 클라라는 처음 등장할 때는 로버트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주는 인물이다. 클라라를 처음 만나고 온 로버트는 여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 그는 여성의 “우월한 정신의 힘”(the power of a mind superior to my own; 206)에 감탄하기도 하고 “여자 속치마 통치”(petticoat government; 206)에 복종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곧 이어 “나는 여자가 싫다. 그들은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그들보다 나은 자들을 괴롭히고 파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I hate women. They're bold, brazen, abominable creatures, invented for the annoyance and destruction of their superiors; 207)”라며 여성혐오주의자처럼 소리치기도 한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로버트는 “오늘까지 한번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여자에 의해 내 인생이 굴러가게 됐다”(I find myself driven into a corner by another woman, of whose existence I had never thought until this day; 208)며 여성과 맺는 관계에 느끼는 불안함을 표출한다. 이미 로버트는 강렬한 색채로 그려진 루시의 초상화를 본 후에도 자신의 이해범위를 넘어서는 “기묘한 느낌”(something odd; 71)에 동요된 적이 있다. 서둘러, “그림은 – 그림일 뿐이고, 숙모도 – 숙모일 뿐... 날 불안하게 하지 마”(The picture is – the picture; and my lady – is my lady . . . don't unsettle me; 72)라며 초상화에서 풍기는 “이상한 환상”(a strange fancy; 71)을 말하려는 알리샤의 입을 막지

만, 로버트는 “진심으로 공포에 떨며 몇 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해야”(He repeated this several times with an air of terror perfectly sincere; 72) 했다. 특이한 초상화 한 점을 보고 난 후의 감정으로 보기에는 로버트의 반응은 유별나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압하는 여성에 대한 로버트의 혼란은 소설 초반에 보여주는 그의 여성적 자질과 후반부로 갈수록 강화되는 남성적 자질 사이에서 로버트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있다. 그는 루시나 피비 같은 여성들 취향으로 여겨진 프랑스 연애 소설에 빠져 있고(32) 영국 신사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승마와 사냥 같은 야외 활동에도 서투르다(114). 로버트가 조지의 추적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을 숨겨진 동성애적 성향의 발로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로버트는 조지의 실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스스로도 “그에 대해 이렇게도 신경쓰는 것이 가능하다니!”(To think . . . that it is possible to care so much for a fellow!; 89)라고 할 정도이며, 클라라에 보이는 관심 역시 “그녀는 조지와 닮았어”(She is like George; 189), “조지와 꼭 닮은 갈색 눈”(She had brown eyes, like George’s; 1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지에 대한 애정에 바탕하는 듯하다.³⁾ 네메스바리에 따르면, 브래든은 1862년에 출간된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남성들의 동성애적 유대를 위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로버트가 동성애적 성향에 이끌리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빅토리아 가부장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남성들의 불안정한 심리에서 촉발된 여성억압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Nemesvari 516). 로버트는 클라라를 사랑함으로써 조지에 대한 ‘불법적인’ 동성애적 욕망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도록 전환한다는 것이다(Nemesvari 524). 과연 이 때부터 로버트의 루시에 대한 추적은 한층 더 활발해지고 그는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남성의 영역에 확고히 기반한다. 클라라는 오빠 조지를 직접 찾아나설 의지가 있는 것처럼 수차례 선언하면서도 끝까지 행동화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로버트에게 의존하며, 이는 자기 목적을 위해 행동화에 나서는 루시와는 대조적이다. 즉, 로버트가 클라라를 사랑하는 것은 가부장적 경계를 침범하는 루시를 차단하기 전, 로버트의 남성성 강화의 과정에 다름아니다.

한편, 길버트는 로버트와 루시는 각각이 처한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본성과 경향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한다(Gilbert 1996, 226). 편안하고 빈둥거리는 것을 좋아하며 프랑스 소설 읽기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 때 루시가 사랑했던 조지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가진 것까지 로버트는 루시와 비슷하다(Gilbert 1996, 226-27). 다만 로버트가

3) 네메스바리는 푸코가 저서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에서 1870년에 출간된 Westphal의 유명한 글 「모순적인 성적 감각」(*contrary sexual sensation*)이 ‘동성애’ 담론을 유형화시킨 시발 시점으로 지적한 것을 근거로 삼아, 비슷한 시기 영국 사회를 휩쓸었던 선정 소설 작가들이 독자를 놀래킬 의도로 이 새로운 소재를 소설 속에 넣는 방법에 골몰했다고 주장한다(Nemesvari 515).

부유한 상류계층에 속한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할 만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었다면, 반대로 루시는 가난하고 힘든 삶에 부대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로버트의 게으름은 모든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서 나온 특권적 권태이다. 그러나 루시로 인해 그 특권이 위협받게 되자 그도 ‘루시처럼’ 행동에 나선다. 빅토리아조 결혼관에 본질적 반골이 아닌 루시가 행동에 나서는 시점도 바로 조지에게, 혹은 로버트에게, 그녀 삶의 토대가 위협을 받았을 때이다.

이처럼 로버트는 소설 속에서 루시를 처단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는 인물이나, 이면적으로는 그 이데올로기 속 남성의 복합적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로버트의 남성으로서의 성장은 루시의 파멸과 맞물리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4. 광기와 처단

『오들리 부인의 비밀』에서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빅토리아 사회에서 여성이 욕망을 가지는 것의 의미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로버트가 루시를 ‘광인’으로 규정하고 의사 모스그레이브의 협조를 얻어 벨기에의 정신요양소에 감금하는 때이다. 별 어려움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승리는 그 이데올로기의 모순적인 면을 숨김없이 고발하는 역설을 드러낸다. 이 때, 루시가 스스로를 ‘광인’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이 소설의 절정을 이룬다. 루시의 ‘광기’에 대해 네이더처럼 “루시의 비밀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광증”이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있지만(Nayder 35), 정반대로 쇼월터처럼 “루시의 진짜 비밀은 광인이 아니며 당대 여성을 대표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도 있다(Showalter 167). 크베코비치는 루시의 광증은 “저항의 표식”으로 쓰인다고 하고(Cvetkovich 55), 피켓은 브래든이 광증을 “폭넓은 범위의 사회통제를 내면화하는 중류계층의 규제에 대해 반발하는, 위험하고 부적절한 여성을 은유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Pykett 95).

이처럼 광기는 소설을 읽는 데 핵심 화두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데, 이에 더하여 브래든이 소설 속 여기저기서 여담같이 흘리는 서술은 광기를 더욱 흥미롭게 한다. 소설의 첫 장에서 루시가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던 도슨 씨네 부부는 “돈 한 푼 없는 루시가 마이클 경의 청혼을 거절한다면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the simple Dawsons would have thought it something more than madness in a penniless girl to reject such an offer; 9)고 한다. 사실 ‘세상의 상식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인데, 3년간이나 조지로부터 아무 소식을 못 받은 루시가 마이클 경과 결혼 않는 것 — 즉 다시 결혼않는 것 — 이야말로 당대 사회에서 ‘미친 짓’으로 여겨졌을 것

이라는 묘한 역설을 보여준다. 또, 빅토리아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듯한 조지의 아버지 텔보이스 씨(Mr. Talboys)가 조지의 행방에 대한 로버트의 추리에 대해 “당신 미쳤군!”(Mr. Audley, you are mad!; 192)이라며 로버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후에 루시가 마이클 경에게 로버트를 “편집증적 광증”(monomania; 287)이라고 호소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상황증거’를 앞세운 집요한 추적자 로버트의 행동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당대 모호하고 세분화되어 있던 광기의 증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 슬그머니 암시된 것이다. 또, 어머니가 광인인 여성 루시는 자신에게도 광증인가가 유전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 알리샤가 보기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확실한 로버트의 “괴벽”(eccentric; 278)을 마이클 경은 부정한다. 이는 광증이 부계 유전보다는 모계 유전이 훨씬 강하다는 당시의 일반적 믿음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빅토리아 사회에서는 광증에 관한 담론은 다양하게 이뤄졌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담론이 젠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본격적으로 루시의 ‘광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루시의 모계 유전적 광기는 그녀 입으로 직접 토로한 고백에서 제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루시의 어머니처럼 루시도 출산에 즈음하여 경제적 곤궁에 의해 극심한 부부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는데, 이것을 루시는 출산 후 광증이 발병할 조짐을 보인 것으로 설명한다. 조지가 떠난 후 폭발한 “격렬한 절망감”을 루시는 “이성과 광기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첫 사례”(At this time I think my mind first lost its balance, and for the first time I crossed that invisible line which separates reason from madness; 353)로 기억하는데, 마이클 경과 결혼 후 안락한 생활을 하자 “제대로 된 균형을 다시 찾”(regained its just balance; 354)으며, 조지가 나타나 위협하자 “균형은 다시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Again the balance trembled; again the invisible boundary was passed; 355)고 한다. 사실 경제적 곤궁에 의해 아들과 집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삶을 찾는 루시의 행동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조지와 다를 바 없다. 즉, 루시의 광기는 그녀의 정신적·육체적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녀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대변하는 지표와 같은 것이고 여성이기에 ‘광기’의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루시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은 질병으로서의 광기라기보다는 절박한 가난의 삶이다. 이는 로버트가 부친으로부터 지위와 재산만 상속 받고 괴벽은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과도 대조된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루시는 스스로 “나는 미쳤다!(I AM MAD!; 346)”고 주장하며, 가부장적 사회가 규정한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당대 사회에서 납득될 수 있는 형태로 욕망을 위장하려 한다. 그러나, 루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로버트에게 그 고백은 그녀를 처리하는 좋은 빌미로 이용될 뿐이다.

광기의 실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매터스가 지적하듯 모계 유전된다고 믿어진 광기를 피하려는 루시의 필사적인 노력은 루시가 가정을 버리고 새 삶을 찾도록 하는 데 강력한 추동원인이 된다는 점이다(Matus 192). 또, 브래튼은 루시의 놀라운 비밀로 광기를 드는 듯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가난을 진짜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Matus 194). 이러한 브래튼의 전략은 당대 중산층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른 루시가 처분을 받는 식으로 소설 열개를 짜면서도, 루시의 삶을 지켜본 독자들은 루시에게 동정심을 보내도록 하며 사회질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조지가 떠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한 루시는 조지가 죽었다고 믿고 마이클 경과 결혼하기에 이르는데(354), 이는 결과적으로는 당대 사회질서를 어긴 것이지만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서는 로버트가 루시의 처분을 위해 데려 온 의사 모스그레이브도 처음에 루시가 집을 떠나서 중혼을 저지른 것은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냉정한 숙고”(coolness and deliberation; 377)에서 지극히 이성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광기의 흔적은 없다”(there is no evidence of madness; 377)고 단언하는 점에서 도 루시 행동에 대한 당대인들의 공감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광기’를 피하려는 루시의 노력과 욕망은 결국 살인기도·방화 등의 극단적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매터스에 따르면 당시 정신과 의사들이 ‘광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살인과 같은 범죄(crime) 행위였고 이는 이 소설의 의사 모스그레이브의 진단에서 그대로 표현된다(Matus 203). 모스그레이브는 루시의 살인 기도와 방화를 듣자 바로 입장을 바꾼다.

그녀에게는 잠재된 광증이 있습니다! 그 광증은 평생에 한번도 안 나타날 수도, 혹은 평생에 한두 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그녀는 정신착란, 급성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속 시간은 매우 짧고 극심한 정신적 압박하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미치지는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오염되었고 광인의 교활함과 지성인의 신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인은 위험합니다!

There is *latent insanity!* Insanity which might never appear; or which might appear only once or twice in a life-time. It would be dementia in its worst phase perhaps: acute mania; but its duration would be very brief, and it would only arise under extreme mental pressure. The lady is not mad; but she has the hereditary taint in her blood. She has the cunning of madness, with the prudence of intelligence. I will tell you what she is, Mr. Audley. *She is dangerous!* (379, my emphasis)

루시의 광증에 대한 최종 진단이라 할 수 있는 위 인용문도 모순으로 가득하기는 마찬

가지이다. “‘잠재된’ 광증”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위험하다”라는 결론과 어긋난다. 모스 그레이브는 루시가 광인인지 아닌지 결론짓지 않는다. 이미 로버트의 의도에 따를 명분은 확보된 것이다. 브래든은 바로 다음 장 ‘환영에 시달리다’(Ghost-Haunted)에서, 조지의 시신이 오들리 코트의 우물에서 썩고 있을 것이라는 루시의 말에 로버트가 겪는 “착란 증세”(hypochondriacal; 403)를 묘사하여 아이러니를 배가시킨다. 화자는 “인생의 고독한 시간에 미친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이며 누가 미치지 않겠는가? 누가 그 균형의 떨림에서 완전히 안전하겠는가?”(Who has not been, or is not to be, mad in some lonely hour of life? Who is quite safe from the trembling of the balance?; 404)라며 모스그레이브의 진단과 로버트의 처단의 허위와 부당함을 고발한다. 특히, 이 장면은 그레이지 히스(Grange Heath) 저택에서 클라라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의 로버트를 연상시키는데, 그는 클라라의 강한 의지와 매력에 흥분해 있다가 갑자기 “얼마나 많은 정신들이 이성과 비이성의 좁은 경계 아래에서 떨고 있는가”(how many minds must tremble upon the narrow boundary between reason and unreason; 205)라며 ‘광기’를 떠올린다. 자신을 압도하는 여성을 만나고 올 때마다 후유증을 겪는 로버트의 모습은 여성의 힘을 두려워하는 무의식의 표출이다.

더군다나, 모스그레이브는 “루시가 조지를 살해했다는 로버트의 의심을 믿을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로버트를 돕는다”(If I saw adequate reason for believing that a murder had been committed by this woman, I should refuse to assist you . . . But I do not see adequate reason for your suspicions; 380)고 단서를 단다. 그렇다면, 범죄를 이유로 루시가 정신병원으로 송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는 부정되고 모스그레이브는 자가 당착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루시가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리상으로 볼 때 ‘의사’ 모스그레이브와 ‘변호사’ 로버트의 교묘한 협력으로 루시는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병원 신세가 된 것이다.⁴⁾ 역사적 사실을 참고해 보면, 당대 정신병원 행의 결정에는 전문지식과 권력을 소유한 남성 이데올로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며 주로 여성들이 그 표적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레 “그녀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논

4) 여기서 잠깐 19세기 중반 영국의 정신병원 환자 통계 수치를 추적한 연구를 잠깐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쇼월터에 따르면, 1845년에 행해진 조사에서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남성 환자의 숫자가 여성보다 약 30% 정도 많았으나, 1845년 ‘정신병에 관한 법령’(Lunatics Act)이 통과된 이후 여성 환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1850년대에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증가하였고 19세기 말에는 그 경향이 더욱 심해진다(Showalter 1985, 52). 또,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남성 의사들은 정신병의 진단이 전문적 지식의 영역임을 이유로 들어 독점적 진단권을 요구하고 여성 간호사의 입지는 줄어들었다(Showalter 1985, 53).

리가 대변하는 가치 체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로버트가 루시를 감금한 진짜 이유는 그녀의 범죄적 광기에 있다기보다는 모스그레이브의 마지막 말처럼 그녀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루시는 여성이 욕망하는 것을 거부한 빅토리아 사회에서 남성처럼 욕망의 실현에 나섰고 남성들의 허위를 드러내고 사회의 균열을 폭로했다. 그러나, 남성들은 부당한 계약 조건을 알아차리는 그녀를 참지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로버트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마이클 경과 로버트에게 고백을 마친 뒤의 루시의 모습이다. 오들리 코트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루시는 값비싼 옷과 패물을 챙기며(382), 미모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에 거울 앞에서 “득의만만하게”(triumphantly; 373) 웃는다. 미모를 자산으로 새로운 곳에서 “가신과 신하들”(her liege knights and willing subjects 382)의 “충성”(royalty; 382)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녀는, 마치 그 때까지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남성들을 다스려 온 듯한 여왕같다. 그러나, 벨기에의 브뤼셀을 벗어나 교외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루시의 마음은 절망한다(384-85). 그녀는 “여행의 끝이 도시이기를 기대”(she had hoped that city might have been the end of her journey; 385)했었다. 기실 헬렌 맬던이 루시 그레이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산업화 시기 정신없이 요동치던 대도시 런던의 혼돈과 익명성 덕분이었던 것이다. 모스그레이브는 “루시가 요양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화무쌍한 행동으로 점철된 그녀의 인생은 끝날 것”(From the moment in which Lady Audley enters that house, . . . , so far as life is made up of action and variety, will be finished; 381)이고 “무슨 비밀을 가졌었던 간에 영원한 비밀로 남게”(Whatever secrets she may have will be secrets for ever!; 381)될 것이라고 단언하는데,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무력증(maladie de langueur; 446)”으로 죽고 만다. 이는 주석에 따르면 빈혈(anaemia)의 옛 말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고통’(mental distress), ‘갈망’(pining)을 암시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루시가 가졌던 ‘비밀’이란 욕망 추구가 금지된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영국 남성들이 보기에 ‘위험한 욕망 덩어리’인 루시를 해외로 추방함으로써 빅토리아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균열시키는 여성의 욕망으로부터 영국은 다시 안전해진다. 그리고 그 욕망덩어리가 생매장되어 죽어버림으로써 그것의 발생과 처리를 둘러싼 견고한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의 부당함도 함께 영원한 비밀로 묻히게 된다.

5. 맺는 말

전라파엘과 화가가 그린 초상화에서 천사와 악마의 모습이 공존하던 루시는 아름답고 우아한 ‘집안의 천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내는 한편 살인과 방화를 기도하는 ‘타

락한 악녀'의 면도 지녔다. 빅토리아조 결혼관에 동의하는 듯하나, 가부장제 남성 이데올로기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결정적 인물이 된다. 루시는 도슨 씨 말대로 당대 '정상'으로 여겨지던 사회관습을 잘 따라서 부유한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잘 살려고 하나, 역설적으로 가장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여성이 되었다. 마침내 로버트에게서 부여받은 이름인 '테일러 부인'(Mrs. Taylor)으로 죽는 루시는, 이름(first name)도 없이 성(last name)만으로 이루어진 그 호칭만큼이나 자신의 정체성은 강제로 삭제된 채 욕망은 '광기'로 규정되어 영국 사회에서 추방된다.

소설의 마지막 장 「평화」(At Peace)에서, 로버트와 클라라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조지, 알리샤, 마이클 경 모두 제복처럼 평화로운 삶을 사는 듯 보인다. 그러나, 평온의 상징이던 오들리 코트는 폐쇄되었고 오들리 코트 집안 사람들을 더욱 외진 시골에 자리 잡는다. 능력있는 남성들과 우아한 여성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풍경은 빅토리아조의 이상적인 가정생활의 표본인 양 그려지지만, 날로 제국주의 · 산업화 · 도시화 물결로 팽창하고 요동치던 당대의 실제 사회를 고려하면 오래 전 동화처럼 비현실적이고 고립되어 보인다. 작가 브래든이 “선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했으니, 아무도 내 이야기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I hope no one will take objection to my story because the end of it leaves the good people all happy and at peace; 446-47)이라고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 역설적으로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화의 속을 한 꺼풀 벗기면 ‘이야기에 반대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이 소설에 폭발적으로 열광했던 수많은 당대 사람들에 의해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문헌

- Braddon, Mary Elizabeth. *Lady Audley's Secret*. 1861 NY: Oxford UP, 1987.
- Cvetkovich, Ann. *Mixed Feelings: Feminism, Mass Culture, and Victorian Sensationalism*. New Brunswick, NJ: Rutgers UP, 1992.
- Gilbert, Pamela K. *Disease, Desire, and the Body in Victorian Women's Popular Novels*. Cambridge: Cambridge UP, 1997
- _____. “Madness and Civilization: Generic Opposition in Mary Braddon's *Lady Audley's Secret*.” *Essays in Literature* 23 (1996): 218-33.
- Girouard, Mark. *Life in the English Country House: A Social and Architectural History*. New Haven: London: Yale UP, 1978.
- Hart, Lynda. “The Victorian Villainess and the Patriarchal Unconscious.” *Lit-*

- erature and Psychology* 40 (1994) 1-25.
- Langland, Elizabeth, "Framing Women's Bodies in the Braddon's *Lady Audley's Secret*." *Beyond Sensation: Mary Elizabeth Braddon in Context*. Eds. Marlene Tromp, Pamela K. Gilbert, and Aeron Haynie. Albany: State U of New York P, 2000.
- Matus, Jill. *Unstable Bodies: Victorian Representation of Sexuality and Maternity*.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P, 1995.
- Nayder, Lillian. "Rebellious Sepoys and Bigamous Wives: The Indian Mutiny and Marriage Law Reform." *Beyond Sensation: Mary Elizabeth Braddon in Context*. Eds. Marlene Tromp, Pamela K. Gilbert, and Aeron Haynie. Albany: State U of New York P, 2000.
- Nemesvari, Richard. "Robert Audley's Secret. Male Homosocial Desire in *Lady Audley's Secret*." *Studies in the Novel* 27 (1995) 515-28.
- Pykett, Lyn. *The "Improper" Feminine: The Women's Sensation Novel and the New Woman Writing*.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
- Schroeder, Natalie, and Ronald A. Schroeder. *From Sensation to Society: Representations of Marriage in the Fiction of Mary Elizabeth Braddon, 1862-1866*. Newark: U of Delaware P, 2006.
- Showalter, Elaine. *The Female Malady: Women, Madness, and English Culture, 1830-1980*. New York: Pantheon, 1985.
- _____. *A Literature of Their Own: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ë to Lessing*. Princeton, NJ: Princeton UP, 1977.
- Thompson, F. M. L. *The Rise of Respectable Society: A Social History of Victorian Britain, 1830-1900*. Cambridge, MA: Harvard UP, 1988.

ABSTRACT

A Woman's 'Desire' and a Man's 'Secret' in Victorian Society: Braddon's *Lady Audley's Secret*

Seo Yon Kang

The so-called sensation novels of the 1860s often expose the Victorian hypocrisy by raising the debate over 'Woman Question.' A central feature in *Lady Audley's Secret*, one of Mary Elizabeth Braddon's sensation novels is related to creating a female character who transgresses the prevailing Victorian conventions and asserts her financial and social security. In a society full of insatiable thirsts for a better life, most women were estranged from satisfying the least desire to improve themselves and marriage was the only path to womanly self-fulfillment. After failure of first marriage, however, Lucy Audley, the heroine of *Lady Audley's Secret*, denies positioning herself passively inside the Victorian domestic ideal that women should accept their designated place under the male's protection. Seemingly performing the role of the ideal Victorian woman, she actively pursues her 'desire' for riches and status as most contemporary men do. Nevertheless, Lucy needs to relinquish her original identity and reinvent herself in order to advance both financially and socially unlike her male counterpart, for her aspirations are aggressive to the masculine order of society.

Meanwhile, Braddon's male characters also reveal a fraudulent duplicity, which culminates when they diagnose Lucy as mad, expel and confine her to a mental hospital in a foreign country. By presenting preposterous thoughts and behaviors of the male characters, the author criticizes the sexually biased view of the symptom, and more generally, the distorted gender dichotomy of Victorian era. Consequently, Braddon proves that 'madness' is the word speaking for the devastating socioeconomic suffering of women under patriarchal oppression as well as the label imputed to a woman who defies the

assigned and stifling role circumscribed by male-dominated Victorian society where women are prohibited from having an unregulated desire.

Key Words sensation novel, desire, marriage, Victorian hypocrisy, Victorian domestic ideal, identity, madness, gender dichotomy